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글 | 이한

그림 | 이지영

글 | 이한

그림 | 이지영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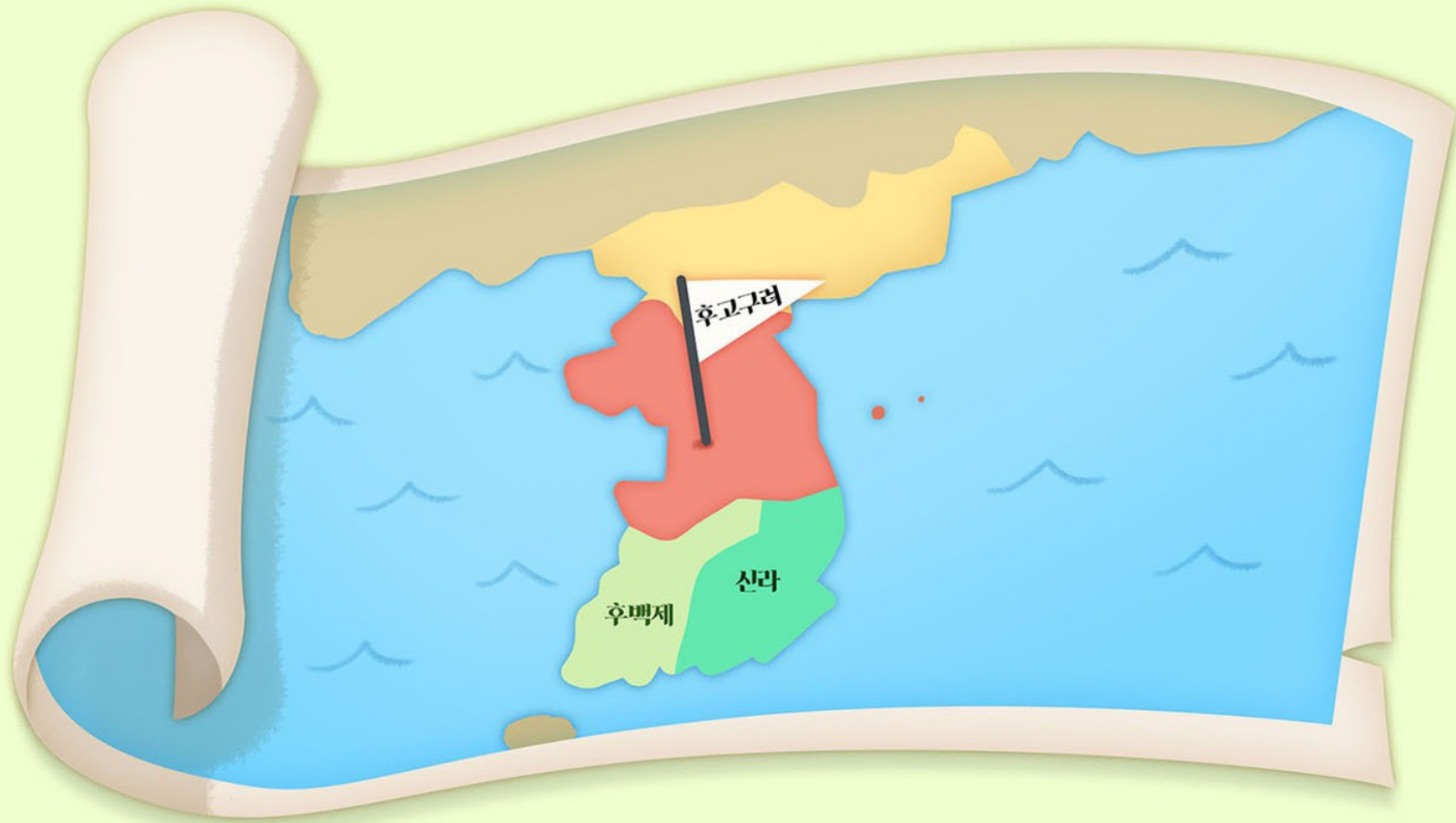
먼 옛날, 신비한 스님이 송악에 찾아왔습니다.
땅의 기운과 물의 흐름을 본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겠구나!”



“스님, 이곳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왕룡과 몽부인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집을 짓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에서 왕건이 태어났습니다. 왕건은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았고 아주 총명했습니다.



왕건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서로 싸웠습니다. 왕건은
후고구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후백제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고구려의 왕 궁예는 폭군이었습니다. 왕비도 죽이고
왕자들도 죽였습니다. 신하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날 해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했지?”

왕건도 궁예에게 죽을 뻔 했지만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궁예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동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모두 괴로워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궁예가 아닌 더 좋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 결심한 신하들은 왕건을 찾아갔습니다.



“궁예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왕건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신하인데 왕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 왕건의 부인 유씨가 갑옷을 가져왔습니다.

“정의를 악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침내 왕건은 갑옷을 입고 궁예와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후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 왕건은 후백제와 신라도
통일했습니다.



왕건이 세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고려입니다.
왕건은 고려의 첫 번째 임금 태조가 되었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